

수입·국산 약재 구별 요령

품목	항목	국내산	수입산(중국)
맥문동	규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질이 많아 굵다. 바깥면이 옅은 황색~엷은 황갈색 깨끗하게 보인다. 크고 작은 주름이 있다. 쭈글쭈글하거나 울퉁불퉁하다. 피층은 부드러우며 끈적끈적하다. 냄새가 거의 없고, 맛은 약간달고 점액성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질이 적어 가늘다. 회황등색 지저분하게 보인다. 비교적 매끈하다. 바삭바삭하다.
복단피	색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면이 어두운 갈색~자색을 띠는 갈색 가로로 길고 작은 타원형이다. 결부리 자국과 세로 주름이 있다. 안쪽면은 엷은 회갈색~어두운 자색 꺾은 면은 거칠다.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은 약간 매우며 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란황색을 띤다. 국산보다 가늘다. 잔미가 전혀없고 거심이 잘되어 있다. 속은 백색이다. 특이한 냄새가 있다.
백지	색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면이 회갈색~어두운 갈색을 띤다. 근두부에 좁게 두드러진 돌림마디가 있다. 횡단면의 주변은 회백색으로 빈틈이 많고 중앙부는 어두운 갈색 띤다.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은 약간 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은 황색이며 속은 백색이다. 크고, 잔부리가 없고, 매끈하다.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은 화끈하다.
백출	색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면이 엷은 회황색~엷은 황백색 군데 군데 회갈색을 띠고 잘 꺾이지 않으며 꺾은면은 섬유성이다. 고르지 않은 평어리 또는 일정하지 않게 구부러진 원주상의 모양 길이 3~8cm 지름 2~8mm 향기가 있고, 맛은 약간 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편지역은 거의 갈고 기타지역은 매우 굵고 크다. 속색은 적갈색이다.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은 화끈하다.
백출	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르지 않은 평어리 또는 일정하지 않게 구부러진 원주상의 모양 길이 3~8cm 지름 2~8mm 	
백출	향·맛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기가 있고, 맛은 약간 쓰다. 	
산수유	색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깥면은 어두운 적자색~어두운자색을 띠며 윤이 나고 거친 주름이 있다. 과육에는 씨를 빼낸 자국인 틈이 있고 위쪽에 꽃받침자국이 있다. 크다. 약간 냄새가 있고 맛은 신맛이 있으며 약간 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cm 두께로 절단하여 건조. 과육이 많고 과육내 씨가 있거나 떨어져 나갔음 크다.

약초유래를 찾아서

양귀비

당나라현종 愛妃의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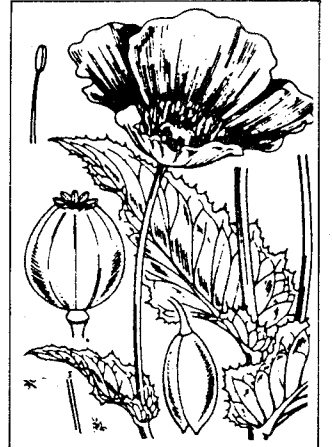
양귀비는 앵귀비과의 1년 생 또는 월년생초본으로 앵속(罌粟), 아편(阿片) 또는 꽃이 매우 화려하여 아부용(阿芙蓉)이라 부르기도 한다.

원산지는 서아시아 또는 남유럽지방으로 줄기는 1m 정도 자라며 녹색을 띄고 있는 어긋난다. 엽병은 없고 잎은 타원형이며 잎가장 자리에 톱니가 있고 꽃은 5-6월에 줄기끝에 크게 달린다.

꽃은 4개의 큰 꽃잎으로

『미터』는 슬픔을 안고 매일 같이 딸 『퍼세폰』을 찾으러 이곳 저곳을 헤매어 다녔는데 늘 피로에 지친 『데미터』는 매일같이 자기의 딸과 같이 예쁜 이 꽃을 꺾어 향기를 맡으며 마음의 안정을 이룰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바로 아편의 진통, 진정작용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양귀비는 역사적으로 이미 2천여년 전에 알려졌고 사용되었으며 그 후 전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중국을



신화의 『모르페우스』에서 유래되었다. 『모르페우스』는 꿈속에 모르피(형태)를 만들어 준다는 개념의 『꿈의 神』으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잠(睡眠)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잠의신』인 『후프노스』가 들고 있는 나무가지로 살며시 사람을 건드리거나 그의 머리에 달린 뿔에서 나오는 액체를 사람몸에 뿌리면 살며시 잠이 든다고 생각하였다.

현재 아편의 생산은 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태국 북부의 『마의 삼각지대』로 불리는 태국, 라오스, 버마의 국경지대에서 대량으로 재배 생산되고 있다.

필자약력

성명 : 안상득

한국 인삼 연초 연구소 선임연구원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 교수
현. 강원대학교 자원식물개발학과 교수
저서 : 약용식물 재배, 자원식물학 개론, 백두산 자원식물도감 외 논문 다수

우리나라에는 중국을거쳐 약5백년 전인 이조중기에 도입되었다

『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데미터』가 되어 흰색, 붉은색, 자주색 등으로 화려하며 꽃이 지면 탁구공 크기의 타원형 또는 구형의 삭과가 맺히는데 완숙되기전 삭과에 상처를 내면 백색의 유액이 흘러나온다.

흘러나온 유액은 공기와 접하면 갈색으로 변하면서 굳어지는데 이를 채취한 것을 아편(阿片)이라 한다.

양귀비에 관한 전설을 보면 고대 그리스에 곡식의 女神인 『데미터(Demeter)』가 외동딸 퍼세폰(Persephone)과 살고 있었다. 『퍼세폰』은 성장하면서 점점 예뻐졌고 결혼기에 이르자 생명의 지배자인 『하디스』

거쳐 약 500여년 전인 이조중기에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중국에서도 궁궐내의 약초원에서만 재배하면서 꽃을 즐기고 이용하였을뿐 외부로의 반출을 금지하였다고 한다. 단지 꽃이 크고 화려하며 좋은 약으로 쓰이고 있는 것만을 알고 있었을뿐 정확한 이름은 몰랐던 것이다.

따라서 『양귀비』라는 이름은 이 식물의 꽃이 너무나 아름다워 옛날 당나라 현종의 마음을 현혹하여 사로잡은 愛妃인 양귀비에 비유하여 이 이름을 붙이게 된것이 연유라고 한다.

또한 아편의 주요성분인 몰핀(morphine)은 그리스

중앙 회원 가입 안내

국산한약재는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소중한 전통의약입니다.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앙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농촌지도기관, 영농법인, 작목반, 생약분야단체, 학계, 제약 및 식품회사, 우리생약에 관해 관심있는 모든분

혜택

- 1) 생약재배에 관한 기술지도
- 2) 생약제약재배 및 수매알선
- 3) 입산채취증 발급
- 4) 생약의 수출입 알선
- 5) 생약분야 정보제공
- 6) 한국생약보(시세표 포함) 제공

구비서류

- 1) 가입서 양식(본부에 비치)
- 2) 주민등록등본 1통
- 3) 증명사진 2매
- 4) 회비 :
 - 개인 : 월 3,000원×12개월 = 36,000원
 - 가입비 10,000원 합계 46,000원
 - 단체 : 월 10,000원×12개월 = 120,000원
 - 가입비 10,000원 합계 130,000원

가입문의 : 협회사무국 전화 (02) 967-8133